현불 논단

소유보다 가치

이화행 교수
동명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네 명의 부인 둔 부호 있었다
불치병을 얻자 부인에게 질문
"나와 저승에도 함께 가겠소?"
둘째~넷째부인 대답은 "싫다"
첫째부인만 긍정적으로 답해

둘째~넷째, 육신 · 재물 의미
첫째부인은 자기자신의 업식
마지막에는 돈 · 권력 무의미
새해엔 '가치 있는 삶'을 살길

다시 한 해가 저물어 가는 지금은 정리와 성찰의 시간이다.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 팬데믹이 모든 일상을 뒤덮어버린 2021년은 이제껏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많은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들이었는지를 깨닫게 해주었다. 20세기 사상가인 에리히 프롬은 〈소유냐 존재냐〉에서 물질적 풍요가 가져오는 폐해를 지적하고 인간이 소유의 삶에서 존재의 삶으로 옮겨갈 것을 강조한 바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창궐은 물질 지상주의로 치달아온 인간에게 삶의 본질과 진정한 가치에 대한 재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지혜로운 선(禪) 이야기를 담고 있는 대행 선사의 〈내 마음은 금부처〉에 나오는 '네 명의 부인' 이라는 제목의 예화 한 편을 소개한다. 옛날 어느 나라에 네 명의 부인을 둔 큰 부호가 있었다. 부족함 없는 행복한 삶을 누리던 그에게 어느 날 불치의 병이 찾아왔다. 용하다는 의사들을 찾아 백방의 노력을 다했으나 속수무책이었다. 갑작스레 다가온 죽음 앞에서 두려움과 억울함을 느낀 그는 자신의 부인들을 불러들였다. 첫째 부인을 늘 마음에 안 들어 했던 그였기에 먼저 둘째 부인을 불렀다. "여보, 여태껏 살아오면서 내가 당신을 잘 돌봐주지 않았소. 좋은 옷 입혀주고 맛있는 음식 먹여주며 편히 지내게 해주지 않았소? 그러니 내가 죽으면 나랑 함께 가 주지 않겠소"라고 물었다. 둘째 부인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매몰차게 거절하며 방을 나가버렸다.

그러자 부호는 셋째 부인을 불러 물었다. "내가 당신을 아내로 맞으려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알지요? 그 정을 생각해서 나를 따라가 줄 수 없겠소."

이에 셋째 부인은 당신이 나 좋다고 쫓아다닌 것이지 내가 당신을 쫓아다닌 것은 아니잖느냐며, 그간의 정을 봐서 대문까지는 바래다주겠다고 말하며 방을 나갔다. 마지막 희망을 걸며 부호는 넷째 부인을 불러 말했다. "당신은 내가 누구보다도 극진히 위하고 사랑했던 부인이오. 외출 중에도 무슨 일이라도 날까 봐 당신 걱정에 늘 노심초사했다는 것을 당신도 잘 알고 있잖소. 그러니 나 죽으면 함께 가 주지 않겠소?" 이에 넷째 부인은 "잘 알고 있지요. 그에 대한 보답으로 묘지 앞까지는 따라가 드리지요"라며 사양하는 것이었다.

더한 절망감을 느끼며 그는 마지막으로 첫째 부인을 불러 하소연하듯 청했다. "한평생 당신을 외면하고 등한시하고 살아와서 정말로 미안하오. 하지만 처음 부부의 인연을 맺은 당신이니 나와 함께 저승길을 같이 가주지 않겠소? 너무 외롭구려." 이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첫째 부인이 말했다. "당연히 같이 가 드리지요. 당신이 잘났든 못났든, 당신과 함께한 세월이 있는데 내가 가지 않으면 당신이 누구와 함께 가겠어요?"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부인들 중 둘째 부인은 우리의 몸을 뜻하며, 셋째 부인은 재물이나 권력을, 그리고 넷째 부인은 자식이나 부부와 같은 가족을 말한다. 첫째 부인은 바로 자신의 업식이다. 죽음이라는 삶의 종착점에서 모든 인간은 육신과 가족, 재물이나 권력과 이별해야 한다. 반면 살아오면서 지은 모든 행위와 생각의 결과로 기록되어진 업식은 떼려야 뗄 수 없이 우리를 따라붙어 다닌다. "살아생전에 아귀축생의 마음을 쓰고 살았으면 아귀축생계를 면치 못할 것이고, 살아있을 때 천상의 마음을 많이 냈던 사람은 죽어서도 극락에 가는 이치가 여기에 있다"고 대행 선사는 설파한다.

이 예화는 코로나19로 얼룩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준다. 소유의 삶 대신 존재의 삶을 추구할 것을 강조했던 프롬의 주장처럼 다가오는 새해에는 소유보다 존재의 가치를 찾는 삶을 살아가기를 희망해본다. 만물만생과 더불어 공생(共生)하는 인류가 공심(共心)과 공체(共體)로 공용(共用)하고 공식(共食)하는 길이 열리기를 발원한다. 이를 위해 마음씀씀이와 일거수일투족의 행동을 지켜보고 성찰하며 살아가는 생활 속의 수행에 게으르지 않았으면 한다.

社 說

한국불교 禪 대중화 기대한다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중봉성파 대종사가 조계종의 새 종정에 추대되면서, 한국불교 선 중흥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 것이라는 기대가 모이고 있다.

성파 대종사가 걸어온 족적과 이로 인해 쌓여온 대중적인 인지도가 남다르게 여겨지기 때문이다. 성파 대종사는 수행자인 동시에 예술가다. 세간의 시선으로 '예술하는 스님' 이라는 독특함은 스님의 인지도를 넓히는 토대가 됐다. 여기에 스님의 소탈한 성품과 깊은 통찰이 더해지면서 남다른 예술세계로 주목받았다. 21년 간 도자기를 구워 16만 도자대장경을 조성하고 장경각을 건립해 봉안하는가 하면, 천연염색, 새로운 옻칠기법을 개발해 사찰단청과 건축, 도자기 등 폭넓은 영역에 적용시키기도 했다. 사찰로부터 유래한 한국 전통회화인 민화에 옻칠기법을 접목하는 등 다양한 예술영역을 개척했고, 불화, 경전 등 사찰불사의 바탕인 우리 한지(韓紙) 개발에도 힘을 기울였다. 이 같은 노력은 전통문화의 보존과 계승을 넘어선 현대화 · 대중화를 이끄는 매개가 됐다. 사찰에 내재된 전통문화와 예술을 발굴해 선과 접목한 '선예일치(禪藝一致)' 의 작품세계가 탄생한 배경이다.

성파 대종사의 예술은 그 자체로 곧 '선' 이다. 대종사의 작품을 만난 이들이 선적인 사유를 경험하고 찬탄하는 이유도 그에게 있어 예술과 수행은 둘이 아니기 때문이리라. 성파 대종사는 환성문하 13세존으로 법맥을 계승한 선지식이기도 하다. 2002년 은사이자 영축총림 방장이었던 월하 대종사로부터 전법게와 함께 법맥을 이어받았다.

종정예하 성파 대종사가 대중에게 내릴 가르침을 기대한다. 또한 이를 통해 '선' 의 대중화를 견인하고 새로운 형태의 불교중흥을 이끌기를 발원한다.

불자 교육 · 조직화 관심가져야

올해도 어김없이 여론조사기관들의 종교 지표 조사 결과들이 나왔다. 가장 최근의 조사는 한국리서치에서 이뤄졌다. 한국리서치의 종교지표 정기여론조사에서는 몇 가지 눈길을 끄는 항목이 있었다.

우선 50대 이상에서 '믿는 종교가 없다' 는 응답이 증가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50대의 '무종교' 응답은 2018년보다 6%로 높은 46%였으며 50대 불자 인구 비율은 3%가 감소했다. 이는 60대 이상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장년 · 노년층 인구 비율이 높은 불교에게 50대 이상 연령층의 이탈은 뼈가 아프다. 또한 1년 간의 종교 변화를 묻는 질문에 1년 전 불자였던 사람 중 12%가 "종교 없음"이라고 답했다. 개신교도 같은 질문에 12%가 무종교인으로 전향했음을 밝혔고, 천주교는 8%가 전향했다.

이런 결과의 원인은 한국갤럽이 지난 5월에 발표한 '한국인의 종교 조사(1984~2021)' 에서 찾을 수 있다. '경전을 얼마나 읽는가' 는 질문에 불자 중 1%만 매일 읽는다고 했고, 매일 기도하는 불자는 5% 밖에 되지 않았다. 경전도 읽지 않고, 기도와 수행도 하지 않는 게 현재 한국불교의 현실이다. 자칭 '수행의 종교' 라는 타이틀이 부끄러울 정도다.

이는 불자들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다. 경전을 읽지 않고, 기도나 수행을 하지 않으니 만족도가 생길 리가 만무며 소속감도 갖지 못한다. 여기에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상황은 종교에서 더 멀어지게 했다.

좋은 수행자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포교가 먼저다. 포교는 교육과 이를 통한 조직화로 나아가야 한다. 교육화 · 조직화된 충성 신도 양성은 앞으로 불교의 화두가 돼야 한다.



담마끼띠 스님의
다문화법당서 보낸 편지

한국의 외국인 스님들

이번에는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스님들의 현황과 역할을 주제로 다룰 예정입니다. 점차 국내에 이주 노동자가 많아지면서 활발한 포교 활동 수행을 위하여 세계 곳곳의 외국인 스님들이 한국에 찾아왔습니다.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스님들은 대략 500여 명으로 파악됩니다. 그중 스리랑카, 미얀마, 캄보디아, 몽골, 일본, 대만, 중국, 티베트 등으로 아시아 국가가 대다수이며, 그 외 미국 등 서양에서 온 스님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보면 국내 스님들의 수가 많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한국에는 140개국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이는 한국 총인구 대비 5.5%이므로 다문화 국가로 분류할 수 있으며, 대다수가 이주 노동자이고 이들은 다양한 목적으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불교 국가에서 온 불자들이 100만 명이 넘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외국인 스님 500여 명은 많은 것이 아닙니다. 외국에서 온 스님들은 출가, 유학, 포교 등의 목적으로 찾아오신 분들입니다.

한국에 들어와 있는 스님이라면 타국인 이 나라에서 당면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예컨대 언어, 기후, 문화 등으로 나눠서 언급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극복해야 하는 것은 언어적응으로 '한국어' 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특히 출가한 스님이라면 제대로 된 언어를 배워야 포교와 의사소통까지도 문제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갖춰진 학교나 교육 장소에서 기초를 다지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시는 모든 스님들은 적어도 1년은 한국어 교육기관(어학당)에 입학해 공부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한국의 기후도 극복하기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와 달리 한국에서는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이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사계절마다 해당되는 계절의 옷을 준비해서 입어야 합니다. 겨울 양말, 내복 등 대부분 아시아 더운 나라에서 온 스님들은 지금까지 접해 보지 않은 것들이라 입기가 쉽지 않습니다. 겨울을 잘 이해하고 잘 지내기 위해서는 단단히 마음을 먹고 월동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또한 문화적인 어려움 중에서 가장 시급하게 적응해야 하는 것은 음식문화로 오자마자 곧바로 한국음식을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입에 맞는 음식이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한국음식을 "처음 먹기는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없으면 안 되는 음식"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인구보다 2배 빠르게 늘어나는 이주민들, 한국은 다문화 사회로 변모하면서 이주를 둘러싼 갈등과 분쟁을 조절하고 상호 공존을 위한 스님들의 중간자(매개체) 역할은 결코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스님이라면 대한민국 사회를 남들보다 더 잘 이해하고 함께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그때 불교도 비로소 함께 빛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오래오래 머물기 위해 그처럼 애쓰는 모든 스님들께 두 손 모아 합장합니다. 〈끝〉

〈충남 아산 마하위하라사원 주지〉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광고국 (02)2004-8214, 8216
FAX (02)737-0698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